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스마트 에너지벨트 만들자”

조환익 한전 사장 日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기념 연설

에너지 저장장치·초고압 직류송전 등 신기술 공유 제안

조환익 한전 사장(왼쪽)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재단(REI) 설립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에너지로 아시아를 잇는 스마트 에너지 벨트(Smart Energy Belt)를 만들자”고 말했다.

스마트 에너지 벨트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 직류송전(HVDC)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전기 등 에너지 자원을 국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 사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지난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WEC), 2014년 아·태 전력산업 컨퍼런스(CEPS) 등에 참석하면서 한전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며 “지금은 전력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인만큼 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환익 사장은 지난해부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면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일 공동 투자 논의를 해왔



일본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설립 5주년 행사서 기초연설 중인 조환익 한전사장.

다. 올해 8월에는 몽골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하는 등 공동 협력을

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한국전력은 전력과 IT 분야의 융·

복합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지난 9일 열린 이 행사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류젠야 중국 국제에너지 상호연결개발 협력기관(GEIDCO) 사무총장, 러시아 국영전력망기업인 로셋티(Rosseti)의 올렉 부다르긴 사장과 4자 면담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과 동북아 송전망 연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글로벌 에너지 연계와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주제로 류젠야 전 중국 국가전망 사장, 다이사쿠 카도카와 코토시장, 올렉 부다르긴 러시아 전력공사(Rosseti) 사장 등 한·중·

일·러의 정·관계, 산업계, 학계 리더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함께 진행된 좌담 토론회에서는 2009년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에머리 로빈스(A. Mory B. Lovins) 하버드대 교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함께 ‘아시아 탈탄소화를 향한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한전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글로벌 비전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스마트 에너지 벨트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력설비 내진 안전성 강화

한전, 원전 등 추가 내진 평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역 강진을 계기로 전력설비 내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한전은 22일 “내년까지 지하전력구(電力溝)와 원자력발전소 전기설비에 대해 추가로 내진 성능평가와 보강 작업을 발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전 전기설비의 경우 스위치야드의 변압기와 개폐기 등에 대한 성능 보강에 집중할 방침이다. 스위치야드는 집전기의 전력을 모아 송전선으로 공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전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 인근 지역의 철탑, 전력구, 사옥, 변전소 등 전력설비의 내진 설계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력설비 지진 대응·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갖춘 상태다.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설비의 경우 변전소 건물은 규모 6.6, 철탑 등 송배전용 설비는 규모 6.3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끔 설계했다. 전국 주요 변전소 15곳에 지진 계측기를 설치했고 전력연구원 내에도 지진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산업체에서 개발한 전력기자재 등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진검증시험도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77개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등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도 마무리했다고 한전은 전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기술개발을 가속화해 전력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T가 인도 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22일~24일 인도 뭌바이에서 개최되는 ‘2016 뭌바이식품박람회’(World of Food India 2016)에 참가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뭌바이식품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모습. <aT 제공>

aT, 인도서 우리 농식품 우수성 알린다

뭌바이식품박람회 한국관 운영 두유·막걸리 등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직무대행 김진영)는 농식품의 인도 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뭌바이에서 개최되는 ‘2016 뭌바이식품박람회’(World of Food India 201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뭌바이식품박람회는 세계 최대 박람회인 주최사 쾰른메세(Koelnmesse)와 인도상공회의소(FICCI)가 공동 개최하는 박람회로서, aT

는 이번 박람회에 오가닉푸드(음료), 오투기(면류), 팥도(면류), 국순당(주류), 티젠(차류), 델리스(스낵) 등 총 16업체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aT 한국관은 인도시장에서의 우리 농식품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알로에음료, 두유, 다시마스낵, 라면, 치즈스틱, 차, 막걸리 등 다양한 품목으로 우리 농식품의 다양성을 어필함으로써 인도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삼계탕’, ‘비빔밥’, ‘달걀밥’ 등의 시연·시식 행사를 통한 모객

과 홍보로 참가업체의 수출상담을 지원한다.

aT 이우성 식품수출이사는 “인도는 최근 2년 동안의 실질경제성장률이 7.4%에 달하는 초고속 성장과 더불어 평균수명 및 맞벌이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에서 2017년 말까지 관세율 인하폭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신시장 선점을 위해 박람회와 같은 해외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 웹 표준화 단체 W3C 공로상

웹 표준화 확산 노력 인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22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 웹 표준화 단체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기술표준총회(TPAC 2016)에서 대한민국의 웹 표준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W3C는 글로벌 웹 표준 제정과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1994년에 설립된 국제 컨소시엄으로, 현재 구글·애플·MS·삼성전자 등 국내외 42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매년 기술표준총회를 열고 최신 웹 표준 동향과 기술개발 방향을 토론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KISA가 받은 공로상은 W3C가 웹 표준화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한 주체에게 주는 상으로, 기관에게 주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KISA는 웹 표준 전환지원·HTML5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 정책을 개발·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이번 상은 웹 표준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대표해 수상한 것”이라며 “웹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이용 환경이 향상되고 웹의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2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 웹 표준화단체 W3C 기술표준총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왼쪽)이 국제 웹 표준화 단체 대표인 제프리 자페 박사로부터 공로상을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CBS 바이블칼리지

동행사 조병호의 Tong Bible School

통통성경학교

CBS 바이블칼리지 통통성경학교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성경학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쉽고,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서 100강의 + 성경과 5대제국 20강의(스페셜)

-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신학을 모두 통통으로 공부합니다.
- 성경 전체를 역사서로 통통(1독) 합니다.
- 누구나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일대일 인터넷 강의입니다.
- 성경을 체험하고 성경으로 행복해집니다.
- 5세 자녀에게 성경을 통통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게 됩니다.
- CBS와 통통원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수료증(Certificate)이 제공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Sola Scriptura!

CBS 바이블칼리지!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

통통성경 Story 인터넷 100강의! cbsbible.co.kr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통으로 공부합니다.

Study the whole Bible in a balanced way using the Tong method.

강사소개 - 통통박사 조병호

세계적인 성경학자, 밀리언셀러 저자,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비텐베르크 스피커

통통원 원장, 하이기독교회 담임, 미국 드루대학교(Drew University) 객원교수, 침례회신학교와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교 신학대학원 (M.Div. 교역학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 신학석사),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선교신학, 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 2011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 2005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창조신 성경통독』 - 2009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우수상 수상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과 고대전쟁』 『성경과 고대정치』
『신구약 중간사』 『통통성경 길라잡이』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외우! 예레미야 70년』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한국기독교역사 100년사 신학』
『消失의帝國』 - (中國 團結出版社 / 성경과 5대제국 중문판) 등 30여 권.
『역사서 일년일독 통통성경』 『역사서 통통성경』

신청 안내 PC : cbsbible.co.kr | 모바일 : m.cbsbible.co.kr

회원가입 ▶ 수강신청 ▶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 ▶ 결제 ▶ 결제승인 후 등록 완료 ▶ 강의 교재 발송 & 강의 동영상 오픈

게시판 문의 : 회원가입 ▶ 고객센터센터 ▶ 문의하기 / 전화 문의 : CBS바이블칼리지 T.02-2650-7800, 7801 / 교육비 : 30만원 (주교재 포함)